FX Market Daily

2026-04-07

전일동향

전일 대비 1.10원 상승한 1,506.30원에 마감

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10원 상승한 1,506.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5.10원 상승한 1,510.30원에 개장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를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이어간 군사 충돌은 달러-원 상방 재료가 되며, 1,506.3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9.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3.16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10.30	1512.70	1503.50	1506.30	1507.20
엔화	942.65	946.58	940.38	943.16	-
유로화	1732.93	1742.75	1731.58	1738.36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2	-4.68	-9.9	-18.07
결제환율(수입)	-0.77	-3.22	-7.59	-14.4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이란 협상 난항에...1,50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4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506.30) 대비 3.15원 상승한 1,508.0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이란 협상 난항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합의 시한이 다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이어지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이 미국과 이란에 휴전안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이란은 이를 거절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은 없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시설 타격을 위한 목표물을 재검토하는 등 이란을 압박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번복 가능성 등 극단적인 정면 충돌은 피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공존하고 있어, 환율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전 협상 관련 낙관론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은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05.75 ~ 1515.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595.7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15원↑
	■ 美 다우지수 : 46669.88, +165.21p(+0.3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5.9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99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